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자녀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의 매개효과¹⁾

정신영²⁾ · 이유미³⁾

²⁾ 자이숲어린이집 원감, ³⁾ 가천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sizuku@gachon.ac.kr)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자녀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301명이다. 구글 설문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301부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9.0과 PROCESS MACRO v4.3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자녀권리 존중, 자기자비 수준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기자비와 자녀권리 존중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자비와 자녀권리 존중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자녀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유아기 자녀권리 존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때 배우자의 지지로 인해 고양된 어머니의 자기자비가 간접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행동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기자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녀권리존중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자비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주체로서 어머니 자기자비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는 심리적 환경으로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의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자녀권리 존중, 자기자비

1) 2024년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재구성함

I. 서론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이며,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평등한 인간이다. 따라서 아동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최정화, 2021). 즉, 아동권리 존중은 생존과 안전 보장을 넘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아동이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 환경은 가정이며, 가정 내 돌봄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권리는 학교나 지역사회보다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서문에서도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라 명시하고, “아동은 행복과 사랑,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정에서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0)을 통해 가정 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86%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23), 부모가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아동권리 관점에서는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유수연, 2022; 서혜정, 2015). 이는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가정 내 아동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가정에서 실제로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가 대부분 어머니라는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23; 이진선 외, 2007)는 어머니가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권리 존중은 모든 양육자에게 요구되는 과제이지만, 가정에서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실행 과정과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권리 인식(김하정, 2018; 신영금, 2017; 오선영, 2020; 최정화, 2021),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문정연, 2017; 홍선미 외, 2018; 김경인 외, 2021) 등 역할과 태도 중심의

변인을 중심으로 관계를 검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권리 존중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유빛나, 2018; 정지영, 2023), 역할 중심 접근만으로는 실천적 양육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어머니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측면과 양육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정서적 유대감, 심리적 안녕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으로 확인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정보적·도구적 도움을 포함하며(신숙재 외, 1998),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작용을 해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내심과 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지혜 외, 2023; 임원신, 2011).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 자신감과 공감적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지하, 2021; 홍선미 외, 2018; 황수연, 2023). 핵가족화된 현대 가족에서 배우자가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박주희, 2015),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강수경 외, 2015; 강주연, 2022; 김상림 외, 2016). 따라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핵심 환경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를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물질적·평가적·정보적 도움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심리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기자비는 실패나 고통을 비난하기보다 보편적 경험으로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반응하는 태도이며(Neff, 2003), 자기자비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형연, 2021).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자녀에게 수용적·공감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oreira et al., 2016; 박은애, 2019; 김동은, 2024; 김숙희, 2017; 정혜진 외, 2020).

그러나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기자비, 자녀권리존중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배우자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자비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동권리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부모 지원 방향과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의 자기자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의 자기자비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기자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는 전자 설문조사의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대전·경기도·부산 등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01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편의표집)를 실시하였다. 거주 지역 및 자녀가 재원하는 교육기관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아 표집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가정양육 어머니도 포함하였다. 비대면 설문을 통해 총 301부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부실 응답이 없어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6세~30세	4.3
	31세~35세	44.6
	36세~40세	36.2
	41세 이상	14.9
학력	고졸	7.9
	2년,3년제 대학 졸업	16.3
	4년제 대학 졸업	65.8
	대학원 졸업 이상	10.0
취업여부	전업주부	42.5
	파트타임	13.3
	전일제	36.2
	육아휴직중	8.0
육아조력자	배우자	54.4
	조부모	22.9
	기타친인척	2.3
	베이비시터	1.3
	없다	19.0
월평균소득	300만원~400만원	19.2
	400만원~500만원	32.6
	500만원~600만원	29.6
	600만원 이상	18.6
자녀수	1명	63.1
	2명	32.9
	3명	4.0
자녀연령	만3세	32.6
	만4세	30.9
	만5세	36.5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1세 이상 35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44.6%),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65.8%). 취업 여부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42.5%), 육아 조력자는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54.4%).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32.6%), 자녀 수는 1명(63.1%), 자녀의 연령은 만 5세(36.5%)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어진이(201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7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지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하여 문항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지지 .88, 물질적 지지 .85, 평가적 지지 .86, 정보적 지지 .96 였다.

2)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수준은 장지연과 이완정(2011)이 개발한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 실행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배려(6문항), 참여(6문항), 의사·존중(5문항), 보호·도움(5문항), 안전·건강(5문항)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 수정 없이 사용되었다.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 실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배려 .82, 참여 .80, 의사·존중 .72, 보호·도움 .71, 안전·건강 .61였다.

3) 어머니 자기자비

어머니의 자기자비 수준은 Neff(2003)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자기판단(5문항), 자기친절(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고립(4문항), 마음챙김(4문항), 과잉동일시(4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자기판단·고립·과잉동일시 하위요인의 13개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판단 .85, 자기친절 .86, 보편적 인간성 .69, 고립 .83, 마음챙김 .81, 과잉동일시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이해도와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후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응답 절차를 안내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문항 이해의 난이도, 표현의 적절성 및 설문 진행 시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가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응답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이에 따라 측정 도구는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예비조사 실시 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대면 조사의 제약을 보완하고 접근성과 범용성

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전·경기도·부산 등에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입한 맘카페를 활용하여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1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없어 301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자녀권리존중, 자기자비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권리존중, 자기자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 존중, 어머니 자기자비의 수준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지지, 자녀권리존중, 자기자비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및 자기자비의 수준 (N=301)

구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4.15	.61	1.7	5.0	-1.18	1.57
	물질적지지	4.19	.60	2.0	5.0	-.95	.64
	평가적지지	4.17	.61	2.0	5.0	-.94	.59
	정보적지지	4.19	.57	1.8	5.0	-.90	.94
	전체	4.17	.57	1.9	5.0	-.03	.92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배려	4.20	.52	2.1	5.0	-.78	.40
	참여	4.28	.50	1.8	5.0	-1.01	1.91
	의사·존중	4.24	.51	2.0	5.0	-.89	1.24
	보호·도움	4.37	.45	2.8	5.0	-.64	.12
	안전·건강	4.23	.54	2.0	5.0	-.93	1.29
전체	4.27	.42	2.7	5.0	-.65	.23	
어머니 자기자비	자기 판단*	3.83	.75	2.4	5.0	-.26	-.96
	자기 친절	2.96	.49	1.0	3.3	-1.50	2.20
	보편적 인간성	3.42	.61	1.0	4.0	-1.00	.942
	고립*	3.88	.77	2.2	5.0	-.25	-1.03
	마음챙김	3.61	.53	1.7	4.0	-1.33	1.00
	과잉동일시*	3.64	.80	1.7	4.7	-.49	-.77
	전체	3.56	.54	1.7	4.3	-.65	-.49

* 역채점 문항

<표 2>와 같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7($SD=.57$)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M= 4.19$, $SD=.60$), 정보적 지지($M= 4.19$, $SD=.57$), 평가적 지지($M= 4.17$, $SD=.61$), 정서적 지지($M= 4.15$, $SD=.61$)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4.27($SD=.42$)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보호·도움($M= 4.37$, $SD=.45$), 참여($M= 4.28$, $SD=.50$), 의사·존중($M= 4.24$, $SD=.51$), 안전·건강($M= 4.23$, $SD=.54$), 배려($M= 4.20$, $SD=.52$)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3.56($SD=.54$)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고립($M= 3.88$, $SD=.77$), 자기 판단($M= 3.83$, $SD=.75$),

과잉동일시($M= 3.64, SD=.80$), 마음챙김($M= 3.61, SD=.53$),보편적 인간성($M= 3.42, SD=.61$),자기 친절은($M= 2.96, SD=.49$)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50 에서 $-.03$ 범위로 나타나 절대값이 3 이하였으며, 첨도는 -1.03 에서 2.20 범위로 나타나 절대값이 10 이하였다. 따라서 모든 변인은 Kline(2011)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 자기자비 간의 상관 관계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 자기자비,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간의 상관관계 ($N=301$)

구분	사회적 지지					자기자비						자녀권리존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87**	1																
3	.80**	.80**	1															
4	.86**	.83**	.82**	1														
5	.94**	.94**	.91**	.93**	1													
6	.52**	.51**	.51**	.51**	.54**	1												
7	.53**	.52**	.47**	.51**	.54**	.64**	1											
8	.27**	.26**	.24**	.23**	.27**	.25**	.47**	1										
9	.52**	.51**	.52**	.52**	.55**	.83**	.56**	.30**	1									
10	.60**	.57**	.53**	.54**	.60**	.56**	.79**	.43**	.50**	1								
11	.56**	.55**	.53**	.53**	.59**	.84**	.74**	.31**	.80**	.66**	1							
12	.61**	.60**	.58**	.59**	.64**	.88**	.84**	.54**	.86**	.78**	.91**	1						
13	.55**	.54**	.57**	.55**	.59**	.47**	.45**	.20**	.42**	.52**	.51**	.53**	1					

14	.53**	.52**	.56**	.54**	.57**	.43**	.42**	.29**	.42**	.48**	.45**	.51**	.75**	1				
15	.54**	.57**	.61**	.58**	.62**	.40**	.43**	.26**	.42**	.46**	.46**	.50**	.66**	.68**	1			
16	.47**	.48**	.48**	.47**	.51**	.37**	.35**	.21**	.41**	.42**	.40**	.45**	.62**	.64**	.51**	1		
17	.46**	.47**	.47**	.46**	.50**	.36**	.35**	.21**	.38**	.43**	.42**	.44**	.60**	.60**	.55**	.65**	1	
18	.61**	.61**	.64**	.62**	.66**	.49**	.48**	.28**	.49**	.55**	.54**	.58**	.87**	.87**	.81**	.80**	.81**	1

* $p < .05$, *** $p < .001$

1. 정서적 지지, 2. 평가적 지지, 3. 물질적 지지, 4. 정보적 지지, 5. 사회적 지지 전체, 6. 자기 판단, 7. 자기 친절, 8. 보편적 인간성, 9. 고립, 10. 마음 챙김, 11. 과잉동일시, 12. 자기자비 전체, 13. 배려, 14. 참여, 15. 의사·존중, 16. 보호·도움, 17. 안전·건강, 18. 자녀권리존중 전체

<표 3>과 같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전체와 자기자비 전체 ($r=.64, p<.01$)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4, p<.01$)를 나타냈다. 자기자비 각 하위요인별 살펴보면, 마음 챙김($r=.60, p<.01$), 과잉동일시($r=.59, p<.01$), 고립($r=.55, p<.01$), 자기 판단($r=.54, p<.01$), 자기 친절($r=.54, p<.01$), 보편적 인간성($r=.27, p<.01$) 모두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전체와 자녀권리존중 전체($r=.66, p<.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권리존중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존중($r=.62, p<.01$), 배려($r=.59, p<.01$), 참여($r=.57, p<.01$), 보호·도움($r=.51, p<.01$), 안전·건강($r=.5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기자비 전체와 자녀권리존중 전체($r=.58, p<.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권리존중 각 하위요인별 살펴보면 배려($r=.53, p<.01$), 참여($r=.51, p<.01$), 의사·존중($r=.50, p<.01$), 보호·도움($r=.45, p<.01$), 안전·건강($r=.44, p<.01$)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머니의 자기자비 수준 및 자녀권리존중 수준과 상호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단계	변수	B	SE	β	t	R^2	95%신뢰구간	
							LLCI	ULCI
1단계 독립 → 매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 자기자비	.616	.042	.641	14.443***	.410	.528	.695
2단계 독립 → 종속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 자녀권리존중	.504	.032	.668	15.536***	.446	.440	.568
3단계 독립 · 매개 → 종속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	.376	.041	.498	9.225***	.488	.295	.456
	자기자비 → 자녀권리존중	.210	.043	.266	4.919***		.126	.294

* $p < .05$, *** $p < .001$

<표 4>과 같이 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자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641$, $p < .001$),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 = .668$, $p < .001$). 이후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를 동시에 투입하여 자녀권리존중을 예측한 결과, 자기자비는 자녀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66$,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자기자비가 다시 자녀권리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기자비가 두 변인 간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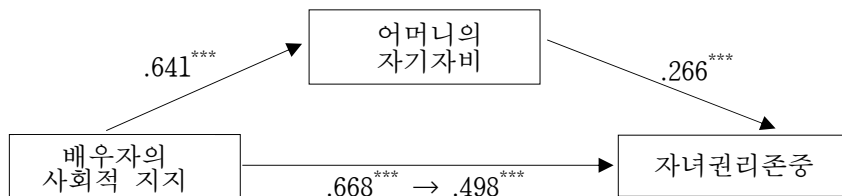
<표 5>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 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경로	Effect (<i>B</i>)	BootSE (<i>SE</i>)	95%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504***	.032	.440	.568
직접효과 (사회적 지지→자녀권리존중)	.376***	.041	.296	.456
간접효과 (사회적 지지→자기자비 →자녀권리존중)	.129***	.034	.064	.199

* $p < .05$, *** $p < .001$

<표 5>과 같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지지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으로 가는 총 효과(B :.504, p :.001, 95% CI [.440, .568]), 직접효과(B :.376, p :.001, 95% CI [-.296, .456]), 간접효과(B :.129, p :.001, 95% CI [.064, .19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기자비가 매개효과가 한다는 검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 효과 검증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 회귀계수(β)이며,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자기자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641, $p < .001$), 어머니의 자기자비는 자녀권리존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266, p < .001$).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668(p < .001)$ 였으며, 어머니의 자기자비를 통제한 직접효과는 $\beta = .498(p < .001)$ 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자기자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자기자비의 수준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는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시연(2017)과 배우자 지지를 분석한 장서연(2022)의 연구와 유사하게, 유아 자녀 어머니들이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정보적 지원을 비교적 충분히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서적 지지가 낮게 나타난 점은 가족·친척·동료 등을 폭넓은 지지 원으로 포함한 선행연구(김정림, 2015; 유연옥, 2017; 윤정민, 2019)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가 지지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배우자 특유의 정서적 교류 수준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서 부부 간 정서적 소통과 마음챙김 기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 요인 중 보호·도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참여, 의사·존중, 안전·건강,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김하정, 2018; 문정연, 2017; 변성은 외, 2023; 홍선미 외, 2018)와 일치한다. 반면 배려가 가장 낮은 점은 가정에

서 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대화와 경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가 가정 내에서 경청과 존중을 경험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서혜정(2015)의 주장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인격 존중과 경청을 핵심 태도로 제안한 이순형 외(2010)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자기자비 수준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역채점 항목 특성을 고려할 때 고립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결과는 실제로 고립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친절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 과정에서 자기 돌봄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정옥(2020)이 제시한, 자기자비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배우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여 고립감을 낮춘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비판 감소와 자기친절 증진을 돕는 정서·심리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둘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 자기자비의 수준간의 상관 관계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기자비,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먼저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자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Neff(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물질적 지지가 어머니가 자신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권리존중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양육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혜화(201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비와 자녀권리존중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자비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더욱 수용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김동은(2024)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셋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어머니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자녀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기자비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권리존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권리존중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기자비를 고양시켜 유아기 자녀의 의견에도 공감하고 존중하는 양육행동을 뜻하는 자녀권리 존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자원을 확장해 자기수용을 촉진한다는 이선아(2014), 민정윤 외(2020)의 연구 및 자기자비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강화한다는 김형연(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자기자비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녀권리존중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 심리적 기제로 기능한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지각될수록 어머니는 정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자기비판을 줄이며, 이러한 심리적 안정과 자기수용의 과정이 자녀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양육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자녀권리 존중을 강화하는 정서·심리적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가 사회적 지지 대상을 가족·친구·동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뤄 온 한계를 넘어, 배우자를 독립적 지지 제공자로 명확히 설정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정책에서 부부관계 강화와 정서적 지지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권리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지식 전달 중심의 부모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머니 스스로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자비 증진과 배우자 간 정서적 지지 증대를 포함한 심리·관계 기반 접근은 자녀권리를 실천하는 양육 행동을 촉진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심리지원·부부지원·자녀권리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 제한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와 자기자비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자비를 촉진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간 지지적 관계를 강화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 연구이므로 인과 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자기자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녀권리존중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가정 내 자녀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자녀 중심 양육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고 자기자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기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녀권리 실천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수경, 이방실, 정미라(2015). 영유아기 손 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 및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돌봄 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35(2), 319-336
<http://dx.doi.org/10.18023/kjece.2015.35.2.014>
- 강주연(2022).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족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https://dcollection.jnu.ac.kr/srch/srchDetail/00000067613>
- 김경인, 구은미(202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역할 만족도가 아동권리준중양육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1(2), 329-351.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2.329>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의, 이우경(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 13(4), 1023-1044.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301310
- 김동은(202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상림, 박창현(2016). 아버지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특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451-464. <https://doi.org/10.7856/kjcls.2016.27.3.451>
- 김숙희(2017). 어머니의 자기-자비와 양육태도의 관계: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지하(202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시적 자료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하정(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준중 실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김형연(2021).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양육이 학령 초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마음챙김양육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남지혜, 이희영, 이지경(2023). 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3), 443-454.
- 문정연(2017). 유아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자녀에 대한 아동권리준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민정윤, 김유미(2020).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과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0), 187-205.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0.187>

- 박은애(2019). **어머니의 내현적 자기애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정신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변성은, 이유미(202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18(2), 35-56. <http://dx.doi.org/10.53526/KACP.2023.18.2.35>
- 서혜정(2015). 자녀 권리존중 활동 실천에 대한 사례 연구: 수지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77-202.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19(1), 27-42. <http://www.childkorea.or.kr>
- 신영금(2017).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인권감수성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https://dcollection.cau.ac.kr/srch/srchDetail/000000198110>
- 안사라(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오선영(2020). **유아기 자녀를 둔 국내거주 조선족 어머니의 유아 인권 인식과 자녀권리존중**.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우다정(2016). **어머니의 영아권리 인식과 실천수준 및 부모역할지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유빛나(2018).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존중을 지향하는 양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https://dcollection.cau.ac.kr/srch/srchDetail/000000151917>
- 유연옥(2017).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유수연(2022).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특성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https://dcollection.cau.ac.kr/srch/srchDetail/000000236719>
- 윤정민(2019). **어머니가 인지한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어진이(2015).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선아(2014).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이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s://dcollection.snu.ac.kr/srch/srchDetail/000000020834>
-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경, 권기남. (2010). 부모교육. **학지사**.
- 이시연(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지식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https://dcol.dongguk.edu/srch/>

- srchDetail/000000074916
- 이정옥(2020).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https://dcol.dongguk.edu/srch/srchDetail/000000080336>
- 이진선, 정문자(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의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5(5), 85-94.
- 임원신(2011).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우울 및 관계적 변인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4), 51-71.
- 장서연(2022). **배우자 지지 및 SNS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장지현, 이완정(2011).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15(3), 391-407.
- 정지영(202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권리존중 양육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정혜진, 신주연(2020).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151-173. <http://dx.doi.org/10.21321/jfr.25.3.151>
- 최정화(2021).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존중 양육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최정희(202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홍선미, 이유미(2018).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 10(2) 359-369
- 황수연(202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우울감이 아동권리존중 양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https://dcollection.cau.ac.kr/srch/srchDetail/000000238698>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3), 662-681. <https://doi.org/10.2307/1131945>
- Delvecchio, E., Germani, A., Raspa, V., Lis, A., & Mazzeschi, C. (2020). *Parenting styles and child's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the perceived parental stres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6(3), 514-531. <https://doi.org/10.5964/ejop.v16i3.2013>
- Moreira, H. (2023). *Self-compassion in parenting*. In A. Finlay-Jones, K. Bluth, & K.

Neff (Eds.), Handbook of self-compassion (pp. 263-289). Springer Nature.
https://doi.org/10.1007/978-3-031-22348-8_16

Neff, K. D. (2003).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32>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Perceived Spousal Social Support on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in Early Childhood: The Mediating Role of Self-Compassion

Jeong, Sinyoung¹⁾ · Lee, Youme²⁾

¹⁾ Jaisup Daycare Center Superintendent, ²⁾ Professor,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pousal social support an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01 mothers raising children aged 3 to 5 years residing in Seoul, Daejeon, Gyeonggi Province, and Busa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Google Forms. A total of 301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v4.3.
- Result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perceived spousal social support,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and self-compassion. Mother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support from their spouses tended to show higher levels of self-compassion an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Second, self-compass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spousal social support on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In other words, higher perceived support from spouses contributed to greater self-compassion among mothers,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s that respect children's rights.
-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spousal social support fosters maternal self-compassion, which subsequently leads to parenting practices that respect children's rights. The findings highlight that, beyond providing external support for parenting, strengthening mothers' self-compassion is a key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promotes positive and rights-respecting parenting. Furthermore, by empirically verifying that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is influenced by spousal social suppor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self-compass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mothers' self-compassion in child-rearing.

Key words : mothers of young children, spousal social support,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self-compassion